

(총 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

최봉준, 195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주는 나의 목자: 11.10.11.10.REF.
장수철(1917-1966)

보통으로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요 나는 주님의귀한어린 양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과 노을 비 끼는고운황혼에
3. 못된 짐승 나를해치 못하 고 거친 비 바람상치못하리



푸른 풀밭 맑은시냇 물가 로 나를 늘 인도하여주신 다
사랑 하는 나의목자 음성 이 나를 언 제나불려주신 다
나의 주님 강한손을 펼치 사 나를 주야로지켜주신 다



후렴

주는나 의종 은 목 자 나는 그 의어린 양

주는나의종 은 목 자 나는그의어린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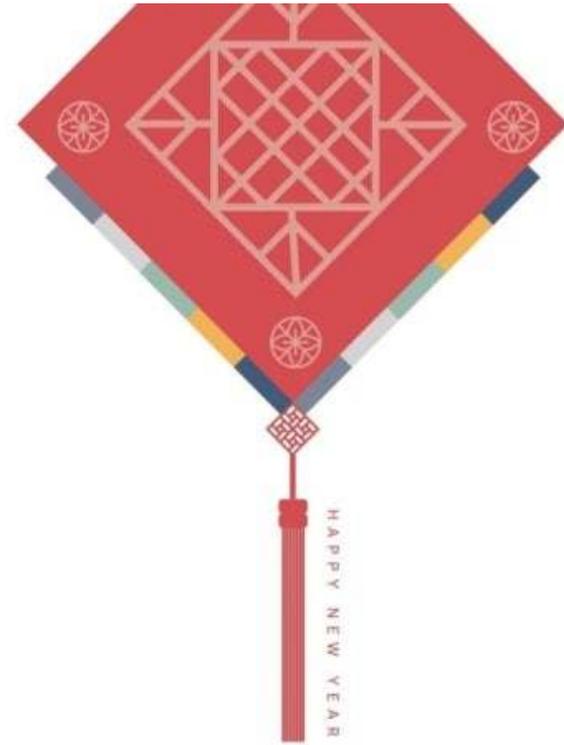


철을 따라 풀을먹여 주시 니 내게 부족함전혀없어 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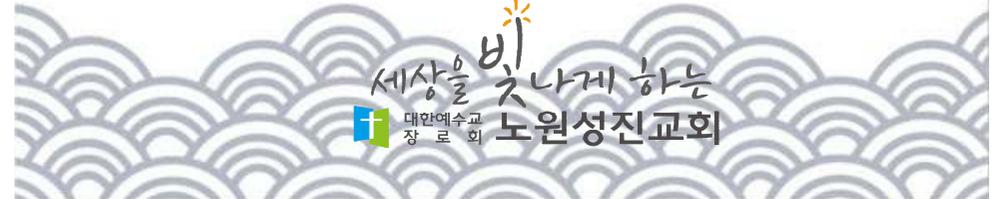
어린이



2023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세상을 빛나게 하는
대안예수교
장로회 노원성진교회



2026 설날 가정예배(추도예배)

1. 가족 중 한 분이 인도자가 되어 주세요. 설교자는 영적 가장이 맡습니다.
 - 1) 향이나 촛불은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 3) 가족들이 성경봉독이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 4) 예배를 모두 마친 후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뒀면)

대표기도 -가족 중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병오년 복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 소망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씩씩한 말과 같이 힘차게 약진하고 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사랑하고 교회에 복음이 충만하며,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요한복음 1장1-5절 (다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이기지 못하더라)

설교 -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날’은 “서는 날”이란 뜻이 있습니다. 새해 설날은 ‘새롭게 서는 날’입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날, 새 기쁨, 새 하늘이 열리는 새롭게 서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Arche)에 말씀(Logos)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1:1)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의 시작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인 빛 곧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고백합니다.(1:14) 말씀, 생명, 빛, 하나님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1:5) 그런데 어둠은 빛이 비추임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3:17) 구원을 주시려고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악하고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 중 ‘깨닫지 못하더라’로 번역한 헬라어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빛으로 나가지 않고 빛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과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편에 서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은 어두움에 비출 것이고 결국 빛이 승리할 것입니다. 당장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을 비추고 발한다면 결국 어둠은 물러나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창조의 생명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길 기도합니다.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고, 부모의 일과 삶의 자리는 안전과 풍요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건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